



가톨릭마산

제2376호 2019년 9월 29일
연중 제26주일 (이민의 날)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법보다 자비”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굶어 죽어가는 나자로를 못 본 척했습니다. 이승살이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당장 잡혀갑니다. 그런데 직접 죽이지 않으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인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후자의 행동을 취했고 이승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는 하느님께서 그의 양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음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나눔은 생명을 살리고 나누지 않음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중 고백을 듣다 보면 “성사 본 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 주일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고 고백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과식을 줄이고 절약한 몫으로 자선할 수 있었는데 인색했습니다.” 고백은 참 드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격은 선을 행하면서 성장하지 법이나 규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성은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갑니다. 법이나 규정만 지키면 그리스도의 인성 대신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의 경직되고 차가운 인간성만 닮아갈 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우들이 주일미사 빠지면 대죄가 된다고 열심히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법이나 규정들은 길인 주님께 가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앞에서나 안에서만 머물면 결국 우리 신앙에는 기쁨과 웃음은 사라지고 멍에만 남을 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보고 맛들여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은 그가 하느님과 이웃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많이 종교적 체험을 했느냐는 것은 아닙니다.”(폰 발타사르)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우들에게 영적, 물질 자선을 7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물질 자선 7가지

1.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 주는 것
2.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주는 것
3.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 주는 것
4.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
5. 병자를 돌보는 것
6.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보는 것
7. 죽은 이를 장사지내 주는 것

영적 자선 7가지

1.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예:전교)
2. 의심하는 이에게 조언
3. 슬퍼하는 이를 위로
4. 죄인을 타이름
5. 모욕하는 자 용서
6. 불쾌한 일을 참아내는 것
7. 산자와 죽은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집회서(25,3)는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신정목 우르바노 신부 | 장재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본 기 도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제 1 독 서 아모 6,1ㄱㄴ,4-7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서 1티모 6,11ㄱㄴ-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습니다. ◎

복 음 루카 16,19-31

영성체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전례는 실천입니다

전례를 관념으로 이해해선 안 되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위한 생명의 빛과 원천으로 봐야 합니다. 예식과 기도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학교’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제68차 이탈리아 전례 주간 행사 연설 중, 2017년 11월 26일 평화신문)

전례는 실천신학에 속합니다. 실천신학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교회 신앙의 기초와 원리로 두고, 그 계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해 연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천’이란 말의 의미는 더 구체적입니다.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실천적 도움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를 ‘실천’하고, 신자는 교회 전례에의 능동적 참여를 ‘실천’하며, 그리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 뜻을 살기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짐스러움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상대방이 느끼고, 경험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전파되고,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소 알로이시오 신부)

전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모든 이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례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하고 신자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훌륭한 의미가 담긴 전례를 넘어 사랑이 넘치는 전례를 행하는 것, 전례가 실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라쿠카라차, 둘

시제의 한마디

‘라쿠카라차’는 멕시코에서 ‘바퀴벌레’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아주 신명나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동요는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중략)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입니다. 기억나시죠? 곡조가 아주 입에 착 감깁니다.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그런데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라니요!! (우웁!)속이 좀 거시기 합니다. 어쨌든, 멕시코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데는 아픈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비참한 처지의 자신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했다거나, 바퀴벌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지녀 죽여도 죽여도 끝없이 등장하는 농민혁명군을 비유했다거나, ‘판초에 ‘숨브레’ 차림의 농민군이 바퀴벌레를 닮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멕시코 혁명전쟁의 영웅 ‘판초 비야’가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바퀴벌레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초 비야’는 농민혁명군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농민혁명을 주도하던 판초 비야를 멕시코인들은 ‘바퀴장군 판초 비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끝내 암살당하고 맙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 쓰러진 혁명. 동학농민혁명 ‘독두장군 전봉준’입니다.(역사의 한순간 실패하고 쓰러진 민중혁명이라도 결코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라쿠카라차’는 멕시코 농민혁명군의 노래다보니 그 내용이 사뭇 비장하면서도 해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너무 신나게 불러 왔습니다. ‘멕시코분들께 괜히 좀 미안합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518번째 이야기

티로와 시돈 1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티로는 현재 레바논 항구도시다. 고대부터 이 지역은 페니키아라 불리었고 티로는 막강한 세력을 지닌 도시국가였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방문하셨고 마귀 들린 소녀를 치유하셨다.(마르 7,26) 시리아계 페니키아 여인의 딸로 알려져 있다.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에도 빠치지 않고 다가갔던 여인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때도 티로와 시돈에선 많은 이들이 와 있었다.(루카 6,17) 두 도시는 분명 예수님의 활동무대였다. 하지만 유대인은 저주스러운 도시로 여기며 적대시했다. 바알신앙 본거지였기 때문이다.

티로는 예수님 당시 지중해 연안 최대도시였다. 로마인이 만든 대전차 경기장은 지금도 남아 있다. 길이 500m 폭 160m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다. 티로 유지들이 돈을 거둬 만들었다고 한다. 풍족하고 화려했던 도시국가를 상상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는 이들이 만든 식민지였다. 기원전 3세기 로마를 침공했던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은 아프리카계 페니키아인이었다. 한니발 말뜻은 바알 신의 은총이란 의미다.

구약성경 열왕기에는 티로 왕 히람 1세가 솔로몬에게 레바논 향백나무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1열왕 5,20) 그는 목공 기술자를 파견해 성전과 왕궁 건설에도 참여케 했다. 솔로몬은 답례로 갈릴레아 성읍 스무 군데 통치권을 줬다.(1열왕 9,11) 북이스라엘 전성기는 오므리 왕조 아합이 다스릴 때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페니키아 여인이었다.(1열왕 16,31)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과 페니키아는 가까운 관계였다. 이세벨은 시집을 때 티로 수호신 바알 신상을 왕궁으로 가져왔다. 당연히 예언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악한 왕비로 기록에 남았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티로를 공격했지만 함락하진 못했다.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빌로니아도 티로는 그대로 뒀다. 페르시아 시대엔 지배를 받아들였지만 독립국가로 인정받았다. 기원전 4세기 희랍의 알렉산더에게 함락되면서 내리막을 걷게 된다. 티로는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다. 자줏빛 염료는 무렉스(Murex)라는 조개껍질에서 추출했는데 지금도 티로 해안에서 잡히고 있다. 당시엔 같은 무게 금보다 더 값어치 있었다고 한다. 레바논은 아랍어가 공용어다. 그들은 티로를 수르(Sur)라 부른다. 페니키아어도 수르였다. 바위란 뜻이라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튀로스(Tyros)라 했고 로마인은 티루스(Tyrus)라 했다. 영어는 티레(Tyre). 우리말도 영어표기를 따라 티레라 부른다. 성경에선 티로, 공동번역에선 띠로, 개신교 성경은 두로라 했다.

무던한 남편이 크게 화를 냈어요

Q

저는 결혼 22년 차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정말 무던한 성격이라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 혼자 화내고 소리 지르다가 제풀에 꺾입니다. 가족도 저는 까칠하고 남편은 무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은 좋은 사람입니다.

최근 저는 완전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올해 여든이신 시아버님께서 우리 집에서 차로 세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항암치료만 받았습니다. 평소 점잖으시던 아버님도 당신 몸이 아프시니까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 “너무 갑갑하니 퇴원해서 집으로 데려다 달라!”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월차,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인데도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걸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했던지 처가 식구와 만나는 행사가 있는 다음 주는 반드시 아버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게 마지막이란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오가며 경비도 많이 들고, 밤길 운전도 위험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도 안타깝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고집 파우지 마시고 요양원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절대 자식에게 귀찮은 일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자 두 분이 알아서 실버타운으로 가셨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아들 좀 그만 부르시지!, 이 새벽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만!”하고 고함을 지르고는 문을 꽁 닫고 나갔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함께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죽을 꿇여달라는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모셔 오잔 말도 안 합니다. 그래도 속이 상합니다. 옆에서 딸도 저더러 참으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했나요?

A

무던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내서 속상하셨군요. 거기다 딸까지 아빠 편인 것 같고요. 남편을 아끼는 마음에 한 말인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속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친절과 시댁은 결혼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다르군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시댁 어른들에게 불만이 생길 만도 하네요. 그 무던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내서 속상하다는 말은 좀 더 성숙한 아내가 되고 싶다는 속마음의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이제 곧 아버지를 영영 뵈 수 없게 되겠지요.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바람에 자주 안부 여쭙지 못한 게 못내 아쉽겠지요. 처가 행사 때마다 멀리 계시는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요. 젊을 때는 철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직장일이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효도를 미룬 게 마음에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무어라도 더 해 드리고 싶겠지요. 이제 눈감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지금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얼른 해드리고 싶은 게지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겠지요. 혹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겠지요. 남편은 지금 아버지와 아름답게 작별하는 작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된다면 남편이 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하세요. 먼 훗날 당신의 아버지 전화를 받고 달려 나가는 따님의 뒤통수에 대고 사위가 화를 낸다면 그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자기 부모에게 향한 마음과 배우자의 부모에게 향한 마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딸이 잘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갑니다.

공론화의 의미

김현주 율리아나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두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 지자체가 앞다투어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정부들이 중요한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엄청난 사회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제주 강정의 미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주민과 해군의 갈등은 건설이 끝나 운영에 들어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군은 불법적 공사 방해로 공사가 14개월 지연되어 발생한 275억 원의 추가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다시 갈등이 심화한 양상이다.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도입되었고, 2017년 8월 17일부터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가 시행되었다. 2년 남짓 운영된 국민청원 건수는 총 43만 7천여 건, 그중 20만 명이라는 민심이 모여 청와대가 응답해야 했던 청원은 112건. 청원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정치개혁 분야라고 한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를 끝나면 다시 노예 취급을 받는다”는 루소의 말에 백번 공감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 국민배심원제, 국민청원, 공론화 등 ‘참여’와 ‘소통’을 표방하는 시도들은 환영할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론화가 지향하는 숙의(熟議: 법원의 배심원, 의회 입법자, 위원회 위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 토론 이후 결정을 내리는 과정)민주주의도 숫자로만 결정해버리는 다수결식 결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는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고, 숙의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개인들의 선호 체계가 쉽게 바뀌거나 개인들이 좀 더 강한 시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존 개스텔, 피터 레빈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중)

최근 창원시는 시가 직접 시행하려는 정책이 아닌 인·허가 사항인 대형쇼핑몰 입점 여부를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하였는데 의제 선정을 두고 말이 많다. 취지는 도심 한복판 대형쇼핑몰의 입점 여부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반경 1km에서 20km 범위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점이 도심지가 아닌 시 외곽에 입점토록 해 중소상공인들 생존과 직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론화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포함한다. 공론화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장場이 되어야지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10월 6일(주일) :

故 김해동(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 44주기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시: 10월 6일(주일)

장소: 용원성당

교구/본당

소공동체장 연수 - 마산지구

일시: 10월 2일(수) 13:00

장소: 월영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신앙대학

일시: 10월 5일(토)~6일(주일)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0월 6일(주일) 10:30

장소: 합천성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51차 선택주말

일시: 10월 25일(금) 20:00~27일(주일)

15:00 파견미사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대상: 성직자, 수도자, 종교무관,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참가비: 9만 원

신청마감: 10월 7일(월)

문의: 010·6490·6077

위원회/기관/단체

가톨릭여성회관 독서모임 회원모집

대상: 30~40대 여성신자

일시: 10월 2일(수) 19:00 (매월 첫째 수)

함께할 책 『나를 지켜준 편지』,

김수우, 김민정, 열매하나

문의: 055·255·5080

레지아 평의회

일시: 10월 6일(주일)

장소: 교구청

문의: 055·249·7115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시: 10월 6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1·9207·8856

소성리 평화바람 미사

교구별 순회미사 매주(월) 14:00

일시: 10월 7일(월) 14:00

장소: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순례

일시: 10월 26일(토)~27일(주일) 1박2일

장소: 경기도 파주일대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위원 및 후원회원

신청: 10월 15일(화)까지 선착순 40명

참가비: 3만 원(경남 504-07-0096809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준비물: 미사준비, 신분증 등

문의 및 신청: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199차 ME주말 안내(2박 3일)

일시: 11월 15일(금) 19:00~17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200차 ME주말 : 2020년 1월 10일(금)~12일(주일)

● 201차 ME주말 : 2020년 2월 21일(금)~23일(주일)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월) 10:00 하대동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병원 미사 안내

마산: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원: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내용: 유덕한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파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한티아고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10월 17일(목) 10:30~10월 18일(금) 15:30 1박2일

11월 14일(목) 09:50~17:30 1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각 6만5천 원, 2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재)왜관성베네딕

도수도원], 접수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1/18, 12/3 (289만원) ◆ 이스라엘 9일 1/15 (299만원) ◆ 아테리 9일 11/7 (279만원) 1/21 구정(299만원) ◆ 성모발현지 13일 10/28(399만원), 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진영삼성안과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니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수맥 (풍) 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풍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10월 26일</td> <td>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td> <td>12일</td> <td>449 만원</td> </tr> <tr> <td>10월 28일</td> <td>터키, 그리스 순례</td> <td>13일</td> <td>399 만원</td> </tr> <tr> <td>11월 11일</td> <td>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td> <td>19일</td> <td></td> </tr> </table> ▶ 출발 확정·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10월 26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 만원	10월 28일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월 11일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10월 26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 만원												
10월 28일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월 11일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옛날의 이유

김용철 스테파노 • 시인

덜컹거리는 대문의 응석을 다독이며 나서는 새벽 미사 길.
늦겨울이라 아려오는 추위와 어두운 시야 때문에 앞을 잘 분간할 수 없는 날이었다. 몸을 붙
끈 감싼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높고 어두운 길을 따라 할아버지는 앞서 걸어가고 할머니께서
는 뒤따라 할아버지의 발자국을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자국을 포개어 보지만 조금씩 멀어지
는 할아버지의 발자국 흔적이 두려운지 할머니의 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디, 영감… 우짜모 저렇노. 보소, 같이 갑시더.”
할머니는 서운함의 푸념을 토해낸다.

“같이 가면 될 낀데. 보이소, 같이 가입시더.”
들었는지 말았는지 할아버지는 자꾸만 멀어져만 갔다.

“우찌, 저리 매정할꼬.”
할머니는 조금씩 짜증이 차오르는 듯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만치 가던 할아버지가 어두운 곳에서 혼자 서 있다. 길목에는 긴 펜스가 쳐져있고
‘공사중’이라는 팻말이 꽃혀있었다.

“빨리 안 오고 머하노? 자, 잡아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을 쭉 내민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괜한 무릎 핑계를 대면서 “아
야야~ 길을 와 이리 다 헤집어 났노.” 하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좁고 긴 골목길에는 마
무리 되지 못한 흙들과 돌부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게 하였다.

이건 분명 당신께서 내리시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돌부리와 흩어진 흙들로 인하여 작은 배려심을 가르쳐주신 주님. 어두운 길에
서로의 작은 어깨가 필요함을 보여주신 주님.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 따뜻한 사랑
이 온 이웃에게도 전해짐을 일깨워주신 주님. 그리고… 그리고… 옛날의 이유
기에 당신께서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두운 길을 성당 앞까지 할머니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성당 앞에서 마주 잡은 손으로 성모님께 바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바라
보며 나는 주님께 가난한 기도를 바친다. 두 분께서 오래오래 이 아름다운 길을
다닐 수 있는 평화를 달라고… 아멘.

